

'전주푸드 효천직매장' 4월 개장

시, 45억원 투입 85% 공정률 기록... 쓰레기 배출 줄이고 채식문화 확산 친환경 특화매장으로 운영

전주시 삼천동과 효자동 등 남·서부권 주민들에게 전주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싱싱한 먹거리를 제공할 전주푸드 효천 직매장이 오는 4월 문을 연다.

전주시는 총사업비 45억 원이 투입되는 효천지구 전주푸드직매장 신축공사가 현재 지붕 및 외부마감공사를 완료하는 등 8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효천지구에 들어서는 전주푸드직매장은 북부권 송천직매장(1호점)과 전주의 중심부인 종합경기장점(2호점)에 이은 3호점으로, 지상 1층 직매장과 2층 마을부엌·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1·2호 직매장이 일반건물에 임차로 입주했던 것과는 달리 효천직매장은 전주푸드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된 신축건물로, 1·2호 직매장과 차별화해 '쓰레기를 줄이는 매장(zero waste)', '채식(vegan) 친화 매장' 등 친환경 특화매장으로 운영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9일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효천지구 전주푸드직매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효천직매장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약 2주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4월 중순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시는 전주푸드 효천직매장이 완공되

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전주 남부권역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대에 농가의 수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매장에 마을부엌과 커뮤니티

공간이 설치되는 만큼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건강한 여가생활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효천지구 전주푸드직매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매장 개장 후 시민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한 마무리 공사를 주문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효천지구 전주푸드직매장은 전주에서 생산된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상징적인 장소이자,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채식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탄소중립 실천의 거점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착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김연경 작가 플라스틱정물화.

'상실에 응답하는 세 가지 몸'

전주 서노송예술촌 '뜻밖의 미술관' 기획전시

전주 서노송예술촌에서 색다른 전시회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27일까지 과거 성매매집결지던 산미촌이 문화예술촌으로 공간전환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설인 '뜻밖의 미술관'에서 '물들고 부대끼고 휘말리는 몸- 상실에 응답하는 세 가지 몸'이라는 주제의 기획 전시가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관주를 기반으로 한 김서라 비평가와 부산 기반의 김만석 독립연구자가 기획한 이번 전시회에는

전주에서 활동하는 김연경·박마리아·이을 작가가 참여해 상실을 보살피는 몸들의 양태들을 구체화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가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각 각 사이보그, 돌봄, 추능을 주제로 몸을 예술로 승화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와 기획자들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는 관람객들과 만나 전시준비과정과 전시 기획의도를 공유하는 대화의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 야호부모학교 활성화 나서

전주시가 아동과 청소년이 시민으로 존중받고 도시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야호정책의 일환으로 자녀의 첫 멘토인 부모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아동학대 사건 발생 등의 여파로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모든 시민이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전주 야호부모학교'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전주 야호부모학교는 시 여성가족과를 컨트롤타워로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협력해 생애주기별·특성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우선 부모교육 참여가 어려운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키로 했다. 맞벌이 부모와 남성들을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시는 또 복지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아동인권교육을 강화한 부모교육을 추진해 아동학대 예방에도 공을 들이고, 재난 위급상황에 가족을 보호하고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부터 재난·안전교육도 신설·운영한다. /김윤상 기자

탄소중립 시민 공감대 확산 실천 교육 전개

전주시, 2024년까지 20만명 대상 '2050 탄소중립' 시민교육 추진

전주시가 시민 20만 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한다.

시는 오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실질배출량이 0이 되는 2050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및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교육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8만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단계별로 총 2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탄소중립 시민강

사 양성과정을 통해 20명의 시민강사를 양성한 시는 올해 시민강사를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심화과정을 통해 △탄소중립 심화이론 △교수학습법 △전주시 정책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탄소중립 시민강사들은 전주시 35개 동과 경로당, 복지시설 등에서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을 하게 된다.

시는 또 전주시역 공공기관과 산업부분, 민간단체, 일반시민 등 협약기관·단체를 중심으로 50명 내외의 탄소중립실천단을 구성해 탄소중립 실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

이다. 동시에 참여 기관·단체 등에 각각 탄소중립책임관을 지정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책임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년서포터즈 운영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 운영 △탄소중립 실천 캐리어 공모 등 모든 시민이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탄소 저감 실천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함께 온 시민이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

몸이 불편한 노인에 이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웃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된다.

전주시는 올해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융합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신질환 분야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 발굴 및 개별 사례관리 △병원 퇴원 및 시설퇴소자의 자립 생활 지원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 연계 등이다.

또한 통합돌봄 대상자들이 맞춤형 상담과 동료지원가 경험 상담, 자립 지원, 생필품 지원 및 독립생활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될 예

정이다.

사업 신청대상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병원 또는 시설에서 나온 후 지역사회 복귀나 독립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전주시민이다.

통합돌봄서비스 의뢰 및 신청은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과 또는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돌봄사업 담당자(063-273-6906), 35개 동 주민센터 통합돌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모집

15~21일까지 선착순 150명... 3월부터 운행태도·친절도 등 평가

전주시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협하는 난폭운전과 불친절 행위 등을 뿌리 뽑기 위한 시민모니터단을 올해도 가동한다.

시는 시내버스 운행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2022년 상반기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1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매월 10회 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17세 이상 시민들로 구성되는 시민모니터단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직접 시내버스에 탑승해 기사들의 운행태도와 친절도, 운전태도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을 포함한 전체적인 만족도 평가를 진행한다.

특히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기존 친절·안전기사 추천과 차량 내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제보 중심으로

이뤄지던 시민모니터단 활동이 올해부터는 △무정차 △급출발 △급정거 △난폭운전 등 불친절 제보 및 모니터링으로 강화된다.

시는 친절한 모범 운전원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시민모니터단의 사연을 제보 받아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 선정에 반영키로 했다.

시민모니터단에게는 평가서 1건당 1시간씩, 월 최대 30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며, 월 10회 이상 활동에 참여한 경우 매월 1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우수 참여자들의 경우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 선정 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된다.

시는 시민모니터단 운영과 더불어 중간시간표 도입, 운수회사 재정지원 차등 지급을 통해 시내버스 난폭운전·불친절을 근절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